

보건의료정보 역량 강화 기반 확보

전주대, 건강보험심사원 전주지원과 '맞손' 빅데이터 연계 교류·재학생 실습 지원 등 사회적가치 실현 통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전주대학교가 15일 대학본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과 보건 의료정보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류두현 대외부총장과 김현표 지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 ▲현장 연계 교육 및 취업, 빅데이터 연계 교류 및 재학생 실습 지원 ▲교육 관련 각종 정보 교류 및 시설 활용 ▲교육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직무능력 증진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실습

자리가 마련되면서 전주대 재학생들의 보건 의료정보 역량 강화 기반을 확보했으며, 향후 전문인력 교류 및 시설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재학생 현장 실습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류두현 대외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 의료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15일 대학본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과 보건 의료정보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 인권강사 양성과정 신규교육생 24일까지 모집

전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인권 강사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 인권 강사 양성과정' 신규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신규교육생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으로서 인권분야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인권 강사 양성과정은 신규교육(기초·심화)과 보수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그 첫 단계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부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분야별 인권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통해 6월 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한 달간 주 2회(화, 목)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시작 전 교육생들의 인권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도민소통·인권공감·인권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mh443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영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올해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권 강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했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도민소통·인권공감·인권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mh443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영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올해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권 강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했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대, 기말고사 기간 '따뜻한 천원의 아침밥' 행사

군산대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조식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며 학업에 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4,000원 상당의 간편식을 1일 300개씩 3일 동안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행사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생버스가 정차하는 황룡도서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표방하는 군산대학교는 매년 4차례씩 학생들을 위한 조식제공 행사를 해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자랑할 자격이 간편식을 먹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피부미용 산업 우수 기술인력 양성 협력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시바산과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15일 대강당에서 (주)시바산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순직 총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김은영 미용건강과 교수, 전병관 산학협력팀장, 이태엽 교수, 진난희 교수, 전은옥 산학협력 MOU 전담 코디네이터와, 라강주 대표이사, 김은화 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피부미용 실습에 필요한 주)시바산 제품 지원 ▲(주)시바산 분사(직영센터) 또는 지역거처 현장실습 연계 ▲시바산 주최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마케팅 능력 함양 ▲우수 학생 세미나 초청을 통한 현장 종사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시바산 취업점 및 전문점 취업추천 ▲우수 학생 분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세미나를 통한 진로 멘토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홍순직 총장은 "협약을 체결해 준 라강주 대표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피부미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15일 대강당에서 (주)시바산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수준 있는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진행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강주 대표이사는 "먼저 전주비전대의 2020년 취업률 전국1위(나 군) 달성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전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피부미용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시바산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국내 에스텍 및 병·의원 중심으로 코스메슈티컬 전문 화장품만을 유통하고, 현재는 미국, 중국을 비롯 해외의 13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K뷰티를 선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해야"

이항근 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전문성 등 확보 위해 설치 필수"

이항근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

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립,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출마예정자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전국 15개 지역 교육감들도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

익산 여산면 양파 농가서... 직원 20여 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익산에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도교육청 직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농가에서 양파 수확 및 선별, 비닐 정리 작업을 도왔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내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



됨에 따라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 함께 농촌돕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차임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고향이 농촌이라 베풀는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양파 수확은 처음이라 힘들었다"면서도 "일을 마치고 보니 오늘 하루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특정 규격 작품·전시체험물 협약 입찰 전 체결 계약분쟁 사전 방지

군산우리별유치원 박헌길 행정실장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군산우리별유치원 박헌길 행정실장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주최한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건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정 규격의 작품과 전시체험물이 포함된 전시체험전 용역 원가계산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건은 원가계산의 기준이 없는 일반 용역 중 행사대응용역을 학술연구용역 및 조달청 행사대응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계약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방계약 제도연구 자문, 지방계약 통계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공모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사·공간,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 지방계약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공제회 내부위원과 외부 위원의 2단계 심사를 거쳐 파급효과, 적용가능성, 충실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박 실장은 이번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서 '특정규격의 작품과 전시체험물이 포함된 전시체험전 용역 원가계산 및 물

등을 준용해 원가계산을 실시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건비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를 적용해 현장부입 용역근로자를 보호하며, 특정규격의 전시체험물 공급사와 발주기관이 물품 전에 체결, 특정규격에 따른 낙찰차이의 입찰 및 계약 분쟁을 사전 방지해 전시체험전 용역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방계약 우수사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kofa.or.kr)에서 책자로 발간하여 우수사례 전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간호교육 인증 5년 획득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 '2021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학생의 학습성과를 지원·관리하는 소정의 영역과 평가항목에서 간호전문직의 요구수준 부합여부를 서면과 현장평가로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평가영역은 간호교육의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과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김경희 간호학부장은 "이번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전주비전대학교 간호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더불어 미래간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졸업생들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등에 취업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중장기적 혈액수급 안정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적십자 전북혈액원과 협약 직원 대상 헌혈운동 전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5일 중장기적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김연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작년 2월부터 전북지역의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총 5회(50여명)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센터 내·외부 적극적인 헌혈 홍보를 통해 평소 시간이 없거나 장소가 멀어 헌혈 기회가 없었던 센터 내 입주기업과 교육생들에게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지역 내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사랑 나눔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직원 대상 지속적인 헌혈운동 전개 ▲연 2회 이상의 정기적 헌혈 동참 ▲도내 헌혈운동 확산 및 헌

혈문화 정착 지원 ▲기타 인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협력 등을 약속했다. 김연숙 전북혈액원장은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나눔단체의 정기헌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으로 헌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해서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북혈액원과의 의미있는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기획팀 063)254-383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